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전문가 소견

저는 독일 그래피티와 도시 예술 프로젝트에서 저자와 출판인, 큐레이터로서 아주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그래피티와 도시 예술에 관해 12권의 책을 썼고 동일한 주제로 52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적인 도시 예술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From here To Fame Publishing의 CEO입니다.

마테이 변호사의 요청으로 이 법정에서 그래피티의 가치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의 주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벽의 뒷면은 온전한 회색입니다. 벽의 전면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흔적은 특히 벽의 왼편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흔적은 “throw-up”처럼 보입니다. 그래피티는 기차나 벽에 누군가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매우 빨리 그려집니다. 어떤 그래피티 작가도 그것이 영원히 남겨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throw-up은 공들여 그려지는 회화 작품들이나 재제작되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작품들 사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법입니다. 만약 그래피티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면 저는 원작자를 찾아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역사적인 가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안에 그것들이 완전히 지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후 사람들이 조각들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세 덩어리로 나뉜 벽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세 덩어리로 나뉜 벽들이 원래의 벽처럼 함께 합치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throw-up은 박경신 선생님께서 안드라의 글을 번역하면서 찾아서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로 보내진 장벽의 일부가 가진 상징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장벽의 일부분들이 베를린에는 아주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장벽들은 국보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버려져 부식되고 있으며 페인트가 겹겹이 칠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선물처럼 건네진 장벽들은 공식적으로 작가들과의 계약을 통해 그래피티 작품으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이 정태용 작가의 그래피티가 지워졌다는 사실을 접하고 꽤나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그 메시지는 2005년 베를린에서 서울로 이전된 장벽에 담긴 소망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베를린의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전시되어 국보가 된 베를린장벽의 일부처럼 다가올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